

호주] 10월 관광시장 동향조사

□ 호주 관광시장 주요 동향

○ 호주 해외여행 증가세 둔화 속 베트남 등 아시아 근거리 목적지 쏠림 심화

- 10월 13일 발표된 ABS 8월 통계 기준 호주인의 단기 해외여행(귀국 기준)은 98만6,25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.5% 증가에 그쳐, 7월(+3.8%) 대비 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축소됨.
- 목적지별로 인도네시아 17만8,830건(+10.6%), 베트남 4만5,630건(+30.3%), 중국 3만4,640건(+5.3%) 등 아시아권 목적지의 성장세가 이어진 반면 영국은 -14.3%, 미국은 -2.2%를 기록해 장거리 서구권보다 아시아 목적지 선호가 지속되는 모습임. 특히 12월 양국 직항 좌석 확대와 맞물려, 합리적 경비와 K-컬처 체험 요소를 갖춘 한국 역시 호주인들의 겨울철 아시아 선호 목적지로서 방한 수요 유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○ 대한항공-아시아나 통합(12.17) 앞두고 한-호 직항 공급 재편 및 확대

- 10월 25일 동계 스케줄 전환으로 시드니 출발편은 아시아나 OZ602(시드니 10:20→인천 19:00, 주간)와 대한항공 KE402(시드니 21:55→인천 익일 06:35, 야간)로 재편돼 주간·야간 매일 2편 체제가 유지되며, 아시아나 시드니 노선에는 연말 A380 투입(B777 대체)이 예정돼 호주 여름 성수기 공급력 및 한국 겨울관광 수요의 확대가 기대됨.
- 아울러 대한항공은 인천-멜버른 직항을 12월 18일~'27년 3월 14일 주 3회(B787-9) 운항해 2013년 3월 운항 중단 이후 약 14년 만에 멜버른 직항이 재개되며, 인천-브리즈번 노선도 12월 20일부터 주 4회에서 5회로 증편함. 호주 여름방학 성수기 공급 확대에 맞춰 멜버른·브리즈번 등 시드니 외 지역 대상 신규 노선 연계 공동 프로모션 추진 기회가 확대됨.

○ 물가 재반등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여행비 부담 확대

- 8월 소비자물가(CPI)는 전년 대비 4.0% 상승해 7월(3.5%) 대비 다시 확대됐으며, 자동차 연료비는 국제유가 상승 및 연료세 감면 종료 영향으로 전월 대비 +14.8% 급등함(7월 +7.5%).
- RBA는 9월 29일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해 4.60%로 조정했으며, 10월에도 해당 금리가 유지되고 있음.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예상보다 높은 국내 물가 압력이 주요 인상 배경으로 제시됨.

○ Western Sydney International 개항으로 시드니 항공시장 구조 변화

- Western Sydney International Airport(WSI)가 10월 25일 정식 개항해 Jetstar의 골드 코스트·멜버른 노선을 시작으로 여객 운항을 개시함. WSI는 호주에서 약 50년 만에 개항한 신규 주요 공항으로, 24시간 운항 및 연간 최대 1,000만 명의 초기 여객 처리능력을 갖춘.
- 첫 국제선은 10월 26일 Air New Zealand의 오클랜드 노선으로 예정됐으며, Singapore Airlines(11.23.~), Vietjet(2027.1.~), Fiji Airways(2027.3.~) 등이 순차적으로 취항할 예정임. 시드니권 국제항공 공급 확대와 항공사 간 경쟁 심화가 향후 아시아 지역 항공료 및 여행 선택지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- 중국 국경절 연휴(10월 1일~)를 맞아 10월 첫째 주 호주행 예약이 전년 대비 19% 증가했으며(Tourism Australia), 7박 이상 장기 숙박 예약도 123% 증가함(Trip.com). NSW는 6월 기준 연간 국제 방문객 410만 명(+5.8%), 지출 A\$151억(+14.5%)을 기록했으며, Tourism Australia는 'Tourism 2035'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여행객 지출을 2035년 A\$610억~690억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함.

○ 봄방학·대형 이벤트 집중으로 NSW 관광시장 활성화

- NSW는 10월 초 봄방학 및 Labour Day 연휴와 함께 NRL Grand Final, Bathurst 1000, Rugby League World Cup 등 대형 스포츠·문화 이벤트가 집중됨. NSW 정부는 10월 주요 이벤트가 A\$1억 이상의 방문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함.
- 특히 Rugby League World Cup(10.15.~)은 시드니·뉴캐슬·울런공에서 총 16경기가 개최되며 3만2천 명 이상 방문객, A\$1,900만 이상의 경제효과가 예상돼 스포츠 이벤트 중심의 인바운드·국내 관광 수요 확대가 두드러짐.

출처

<https://www.abs.gov.au/statistics/industry/tourism-and-transport/overseas-arrivals-and-departures-australia/latest-release>

<https://www.abs.gov.au/media-centre/media-releases/cpi-rose-40-year-august-2026>

<https://www.aeroroutes.com/eng/260716-keoz2h26syd>

<https://travelweekly.com.au/first-flight-takes-off-from-wsi-as-australia-opens-its-first-major-airport-in-50-years/>

<https://www.nsw.gov.au/departments-and-agencies/dciths/ministerial-media-releases/blockbuster-october-events-schedule-to-bring-tourism-boom>